

# LG화학, 타이완 편광판 시장 도전

## Dyma System과 합작공장 건설 합의 ... 2004년 말 800만㎡로 증설

LG화학(대표 노기호)이 중국에 이어 타이완에서도 TFT-LCD용 편광판 생산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화학은 타이완 Dyma System(恩茂科技)과 TFT-LCD의 핵심 소재인 편광판 생산기지 건설에 합의하고 12월19일 현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편광판 원단과 기술을 Dyma System에 제공하고, Dyma System은 편광판을 재단·검수하는 후가공 공정을 거쳐 LG화학을 통해 타이완 내 TFT-LCD 생산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Dyma System은 타이완 Chung Li(中歷)에 2004년 4월까지 400만제곱미터(1400만set)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2004년 말경에는 800만제곱미터로 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후가공 공장이 위치할 Chung Li 지역은 AUO, CPT, QDI, Innolux 등 주요 고객사들이 밀집한 Hsinchu(新竹)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어 신속한 기술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김종팔 부사장은 “최근 들어 LCD TV, 노트북, 모니터 등 TFT-LCD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확대로 국내의 LG Philips LCD, 삼성전자 등과 경쟁하고 있는 타이완의 AUO, CPT 등 대부분의 TFT-LCD 생산기업들이 차세대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LG화학은 타이완 현지 편광판 후가공 공장 설립을 바탕으

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타이완 시장에서 점유율을 2004년 말까지 3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타이완의 TFT-LCD용 편광판 시장은 4100억원 수준이며, 2004년에는 약 6400억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1조3000억원 규모의 전세계 TFT-LCD 편광판 시장은 일본 Nitto Denko가 4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타이완 시장에서는 일본 Saritz와 제휴한 타이완 Optimax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23>

